

기고

5·18, 다시 금남로를 생각하며



노영기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교수

해마다 5월이면 광주는 무척 아프다. 38년 전 국가 폭력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고, 그 아픔이 완전하고 제대로 풀이지 않아서이다. 게다가 올해는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하던 반인도적 죄악들이 드러나고 있어 그 아픔의 무게감이 더해 간다.

그날의 합성과 야만의 중심에는 금남로가 자리하고 있다. 보통 길에는 사람들의 숨결과 역사, 문화,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남아있다. 사실 빛고을의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 금남로이다. 조선 중기의 명장인 금남 정충신의 봉호(封號)로부터 그 이름을 따온 금남로는 빛고을의 심장부였다.

지금이야 금남로 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5·18항쟁이 기억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일제 시기에는 ‘명치정

(明治町)’이란 이름의 거리 한가운데는 전남도청이 자리 잡았다. 1947년에 일본 이름을 없앤 뒤 금남로라 하고 길도 넓히며 오늘에 이르렀다. 관공서, 은행, 언론사, 문화시설, 호텔 등이 웅기종기 모여 있어 광주 사람들의 발걸음이 제일 붐비는 곳이었다. 또한 바로 옆의 충장로와 함께 광주 사람들의 일상이 만들어지던 거리였다. 금남로는 전남도청으로 상징되는 지배의 공간이며 동시에 권력의 잘못에 대항하는 저항의 공간이었다. 그야말로 지배와 저항이 교차하던 거리였다.

금남로의 역사에는 5·18항쟁만이 있었던 게 아니다. 어쩌면, 5·18항쟁은 이전부터 쌓여온 저항의 역사가 모아진 결과이다. 광주 사람들은 늘 금남로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옹기 못한 것에 저항했다. 1960년 4월 19일 오후 금남로는 교복 입은 고등학생들로 가득 찼다. 그전까지 ‘반공 쫓기 대회’를 했음직한 학생들이 “이승만 하야”를 외치며 광장 앞으로 모여들었다. 경찰은 곤봉을 휘두르고 최루탄과 소방차의 물대포를 쏘며 학생들의 시위를 막아섰다. 그날 밤 경찰이 발표하여 지금의 금남공원 앞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쓰러졌다. 4·19혁명을 이룬 뒤로도 시민들은 금남로에 모여들었다. 오늘날의 ‘미투운동’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축

첩(蓄妾) 출마자’를 반대하는 여성들이 시위하고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하던 학생들이 모인 곳도 금남로이다.

5·16군사쿠데타에 좌절된 사람들은 다시 금남로에 모였다. ‘굴욕’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맞게 진행된 한일회담에 반대했다. 어느새 전남도청 앞 광장은 박정희 정권의 하야를 권고하는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시켜 금남로의 합성을 억눌렀다. 못다 이룬 꿈은 여기에서 멈춰지진 않았다. 학원이 박정희 정권의 군홧발에 질식될 무렵 이것에 반대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학생들은 금남로에 모여 학원 자율화를 외쳤고, 박정희 정권은 이내 군대를 동원해 학생들의 외침을 짓어냈다.

1979년 ‘10·26’이 터져 유신 독재가 몰락하자 사람들은 금남로에 모여 민주주의를 외쳤다. 집회를 열고 햇불을 들며 ‘5·16군사쿠데타’의 허수아비를 불태웠다. 손에 잡힐 것 같았던 민주주의는 ‘유신의 적자’들에 의해 가로막혔다. 군인들이 대학을 점거하고 모든 집회 및 시위는 금지됐다. 언론은 검열이라는 재갈에 물려 침묵과 왜곡을 강요당했다. 학생들은 5월 18일 오전 ‘계엄 해제’를 외치며 금남로를 내달렸다. 이날 오후 4시경 금남로에 공수

부대원들이 발을 내딛으며 상황이 급변했다. ‘태양의 후예’들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되레 곤봉과 총검을 휘둘렀다. 사람들을 붙잡아 옷을 벗기고 무자비하게 두들긴 뒤 끌고 갔다. 5월 21일 오후 군은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발포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쓰러진 사람들을 부축하고 총을 들어 군에 맞섰다. 정부와 군은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몰고 의로운 저항은 ‘내란’이나 ‘폭동’으로 깎아내렸다. 5월 27일의 ‘상무중정작전’으로 시민들의 항쟁은 일단 멈춰졌다.

1980년대 내내 금남로는 시민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다. 전두환 정권은 사람들이 금남로에 모이는 것을 두려워했다. 경찰이 거리를 막고 최루탄과 화염병이 거리를 뒤덮었다. 1987년 6월항쟁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시 5월이다. 여전히 광주의 5월은 푸르른 날씨만큼이나 아프다. 그리고 아직 5·18의 진상이 ‘빙산의 일각’밖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금남로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며, 특히 이 땅 모든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담아내는 거리를 바라본다. 금남로의 역사 속에 5·18항쟁만이 있지 않았고, 그날의 분노와 함성이 어느 한 사람만의 외침이 아니었듯이.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인기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나 스토리의 신선함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있다고 본다. 그 무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잃어버린, 혹은 목말라 하는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성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다.

아저씨 박동훈(이선균)과 이자안(아이유)의 관계는 평범한 직장 상사와 하급자의 관계가 아닌 전혀 다른 관계로 나타난다. 그동안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가 주는 낯설과 신선함이야말로 이 드라마의 힘이다. 권력을 가진 강자가 그렇지 못한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은 유부남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끼는 사적 혹은 이성적 감정의 산물도 아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느 누구도 나라는 존재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온통 나를 부정해야만 할 수 있는 시대에 ‘나의 아저씨’는 진짜 치유란 이런 것이라고 알려주는 이야기를 담았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시대는 어쩌면 행복한 시절이었다. 이제 우리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여성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누구의 아내 혹은 누구의 엄마로 살아가는 것의 핵심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다는 점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꿈과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꿈과 욕망을 채워 주거나 보완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 일종의 ‘투명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다. 직장을 다니는 노동자들 대부분 자신의 생각이나 꿈보다는 기업 ‘총수’의 꿈을 채우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한진 사태는 그 결정판이다.) 아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세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투명인간을 넘어 ‘잉어’로 취급당하고 있는 시대이다. 아이들이나 노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기는 실종되고 부모나 사회가 요구하고 규정하는 존재로서만 살아가는 것이다. 모두가 ‘가면을 쓴 존재’이거나 ‘투명인간’이 되고 있다.

‘나의 아저씨’에서 보여 주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을 만나는 과정이다.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가 능하다. 현재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직업이나 연령·성별·외모 등을 제쳐 놓고 오직 그 한 사람을 마주할 때 비로소 영혼을 보게 된다. 그것은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판단 중지’의 연습을 필요로 한다. ‘판단 중지’는 속도와 효율의 시대에 가장 어려운 일일지 모른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포장하고 있는 그 무언가로 판단하고 대우한다. 우리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 내 앞에 앉아 있는 상대방을 빨리 파악해서 내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 판단에 근거해서 내게 유용한 인간과 불필요한 인간으로 나누는 훈련을 반복한다. 이 일상에서 탈출하는 일을 우선 해야 한다.

대부분의 배제와 불평등과 차별은 그 지점에서 발생한다. 달걀거리는 아이의 입술에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느린 말투에도 집중한다. 진짜 필요한 훈련은 아이의 돌출 행동에 당황하지 않는, 절망적인 고통과 슬픔을 토로하는 몸부림을 풀어 줄 수 있는 연습이다. 비 오는 날, 달팽이의 느린 걸음을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훈련이 필요하다. 어쩌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출발점은 그렇게 작은 풍경에서 시작될지 모른다.

천란한 슬픔과 놀라운 기쁨이 가득했던, 2018년 봄이 지나간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조국을 보면서 햇살과 빔방울만으로도 가능한 매일의 기적을 본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다. 잘 찾아보면 그러한 근거와 증거는 무수히 많다. 이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일은, 이것이 바라보고, 잘 듣고, 조용히 일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것만으로도 풍요로운 삶이어야 하리라.

종교칼럼



장현권  
광주 서정교회 담임목사

어머니!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 이따나 무 한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그동안 안부 한 번 제대로 전하지 못한 저에게 소중환 ‘오월 어머니상’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광주민중항쟁 38주년 기념일입니다. 며칠 전부터 ‘보아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기념식에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아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울컥합니다. 그 만큼 어머니 이름 안에는 슬픔과 고통이 묻어져 있지요. 막심 고리끼의 ‘어머니’는

‘오월 어머니상’을 주신 어머니들께 드리는 편지

최대의 고통자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또한 아르헨티나 마요 광장에서는 30년이 넘게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어머니들이 행진을 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강철 같은 ‘5월 광장의 어머니회’의 행진입니다.

광주의 5월 어머니들도 38년이 지나도록 그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기가 벅겁기만 하지요. 5월 어머니! 댁모든 5월을 지키며 살았던 어머니, 무슨 일만 있으면 당장차에 실려가 길바닥에 내던져지는 모진 세월을 살았던 어머니들을 저는 두 번도 보았습니다.

어머니! 당신들은 시대에 온몸과 마음을 던지며 치열하게 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역사의 진보를 일궈냈습니다. 특히 1980년 5월 사랑하는 가족이 희생을 당했지요. 또한 서슬 퍼런 군부 독재에 아랑곳 없이 민주화 투쟁 대열에 앞장섰습니다. 마음속에 묻은 고통을 치유하고 노후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오월 어머니집’에 모여 안부를 묻고 서로 보살피는 일을 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오월 정신인 ‘민주, 인

권, 평화’를 부단히 계승해나가는 공간이 바로 오월 어머니집입니다.

지금도 오월 어머니들은 옛 도청 원형 보존을 위한 농성을 600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과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때,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스팔트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때 어머니의 따스한 손을 잊을 수 없어요. 무엇보다 몸 돌 바를 모르는 것은 부족한 저를 오월 어머니집 수성자로 추천 선정해 주신 일입니다. 지난 2007년 제정돼 해마다 시상해온 오월 어머니상은 저 외에도 옛 전남도청 복원 대책위원회와 서유진 인권 활동기를 선정해주셨습니다.

저를 추천하신 어머니는 “장한권 목사는 목사 이전부터 역사 의식을 갖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며 고통 받는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종교인이다. 목사가 된 이후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특히 광주민중항쟁 때 비록 시민군으로 활동은 못했지만 살아남은 자로서 역사에 대한 부채 의식을 가지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애썼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목사로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이후에는 유가족과 함께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 회복, 추모 사업에 남다른 열정으로 참여했다..”(민주주의 광주행동 박정린 공동대표)

그러나 저는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는 것은 목회자로서 당연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단의 희생양이 된 장기수들을 돕고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도 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봅니다.

지난 12일 시상식 때 어머니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광주민중항쟁보다 세월호 참사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라고요. 그날 저는 다짐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절을 했지요.

오월 어머니상을 오월 어머니들과 세월호 엄마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지금도 못한 목사 직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김복례(86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안부 인사로 가겠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社說

5·18 38주년 올해는 꼭 미완의 과제 해결을

올해는 5·18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이 되는 해다.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금남로 일대에선 추모제와 전야제가 열려 5월 영령의 닳을 위로했다.

올해 5·18 전야제의 주제는 ‘보아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18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5·18진상규명특별법, 5·18진상규명위원회) 마련과 5·18 당시 계엄군 관계자의 증언, 군 관련 자료 공개 등으로 진실에 대한 목마름이 어느 때보다 큰 것을 반영했다. 진상 규명을 통해 미완의 5·18을 매듭짓고 남북 화해 분위기를 살려 한반도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염원이 담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5·18은 미완의 과제인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진상 규명을 위한 5·18특별법이 이미 제정됐고 9월부터 진상규명위원회가 가동된다는 점에서 이

번이 5·18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특히 계엄군의 증언과 군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계엄군들은 전두환과 핵심 측근인 장세동이 5·18 당시 광주에 있었다는 증언을 내놓았고 군 관련 자료는 공수부대원들이 6월초까지 광주에 남아 사상자를 처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5·18 사전 기획설과 압매장 의혹을 밝히 줄 증언과 기록이다.

그러나 5·18 진상 규명의 핵심인 발표 명령자의 경우 심증은 확실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마침 전두환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곧 법정에 서는 만큼 정부와 군 당국은 물론 정치권도 초당적 협력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발표 명령자와 압매장 의혹 등을 풀 수 있는 군 관련 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내란 수괴 전두환·노태우 경호할 필요 없다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내란 수괴이자 5·18 학살 주범인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호를 금지하는 등 전직 대통령 자격의 예우를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반란을 일으켜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이들에게 정부 차원의 경호는 당연히 폐지해야 하며, 그들의 행적을 미화하는 각종 기념물도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 전·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를 위한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한다.

이들은 “두 전 대통령 사저 경비에 총 180명 정도의 경찰을 투입, 연간 9억 원의 경호비를 쓴다”면서 “내란 수괴이자 헌정 질서를 짓밟은 범죄자에게 경호는 필요 없다. 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아 민주 영령을 기리고, 의결과 직접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민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포천시 시민단체들도 이날 포천시 축석고개에 전두환 친필로 새겨진 기념비의 철거를 요구했다. 이들은 호국로(纛國路)라고 쓰인 기념비를 ‘학살자 전두환 죄악 증거비’라고 쓰인 천으로 덮기도 했다. 경남에서도 전두환 아호를 딴 합천군의 ‘일해공원’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두환은 아직도 회고록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역사적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학살 만행과 민주주의를 말살한 범죄자가 이처럼 활발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독자이자 학살자였던 히틀러나 무솔리니에게도 전직 직함을 붙여 주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반란죄를 범한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모든 예우를 중단하고 그들을 다시 법정에 세워 역사적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신순용 소령. 1980년 5·18 당시 3공수여단 11대대 4지역대장으로 시민군 3명을 사살해 압매장한 사실을 증언했다. 같은 부대 15대대 김연철 하사는 증언과 함께 지난해 압매장 발굴 조사를 직접 돕기도 했다. 11공수여단 63대대 지대장으로 광주에 투입된 윤성식(가명) 중위는 “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때 내다 봤다. 탄창에서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사격했다”고 고백했다. 광주일보에 5·18 계엄군의 고백과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특전사 보안대장이었던 김홍섭 소령은 “특전사 작전참모였던 장세동이 5월 9일부터 완전 진압될 때까지 광주에 있었다”고 말했다. ‘5·18 사전 기획설’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정호용 특전사령관도 이 증언을 거들었다. “장세동이 광주 내려갈 때 내게 보고한 것 같아. 보안대장이 말했으면 사실이겠지.” 공수부대에서 60사단과 전교사 사병 및 505보안대원까지, 줄줄이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독 말을 아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7공수특전여단 장병들이다. 7공수는 날개 단 백마 ‘천마부대’다. 주둔지는 전북, 당시에는 11

지금도 광주와 전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증언하는 단 한 명도 없는 지 이유가 궁금하다.

5·18에 참여했던 계엄군들도 이제 환갑의 나이쯤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들은 해마다 5월이면 무슨 생각을 할까. 혹 5·18 민주묘지에는 가 보았을까. 천주들과 솔자리에서, 또는 자녀들에게 5·18을 어떻게 말할까. 지난해 5·18 유가족과 단체들은 당시 상황을 증언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기억이 더 사라지기 전에, 38년 전 그날을 증언해주었으면!

/유재관 편집1부장·부국장 jkyou@

‘천마’는 말이 없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면,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